

Open Doors

03

2022

VOL.239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북한선교현장-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 (12)

박해와 선교현장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현장스토리
비밀신자들의 신앙 여정
현장스토리
비밀교회를 위한 비밀선물



카톡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윤상덕 목사 (일산교회 담임)

2021년 12월 30일. 송구영신예배를 앞두고 차를 운전해 오두산 전망대에 올랐다. 고양시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기에 북한 땅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 있다. 북한 동포를 위해 잠시 기도하고, 사진을 찍고 기념품을 사와 책장에 두었다. 어떻게든 북한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그리고 송구영신예배 때 그 사진들을 보여주며 북한 땅과 동포들, 지하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다.

누가복음 10장의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아는 이야기다. 심지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법 해석의 기준이 있을 정도로, 그 날 그 자리에서 사마리아인이 베풀고자 한 자비의 의도는 칭송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전제해야 한다.

첫째,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강도 만난 자가 있다. 둘째, 누군가에게는 그 피 흘리는 사람을 돕지 않을 명분이 있다. 셋째, 누군가는 어떤 위협을 무릎 쓰고서라도 피 흘린 사람을 돕는다. 넷째, 하나님은 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신다. 다섯째, 하나님은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원수 된 나를 위해 아들을 피 흘리게 하심으로 나를 도우셨다.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잇는 그 길은 아주 오래된 도로이고, 산속 길이어서 강도가 자주 출몰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인 여리고와 수도 예루살렘을 잇는 도로에 사람

이 다니지 않을 수는 없는 법, 결국 누군가는 그 길을 강도 만날 줄을 알고도 가야 한다는 얘기가.

성경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갔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당시 배경을 이해하면 크게 두 가지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피 흘린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지고, 부정해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 길에 매복하고 있을지 모르는 강도들에 대한 두려움이 도움의 손길을 막았을 수도 있겠다. 둘 다 이해가 되는 명분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비대면 예배의 긴장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다. 코로나가 처음 발병하였을 때, 우리 교회는 지역 내에서 가장 먼저 문을 닫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한 교회이기도 하다. 한국의 교회들은 비대면이 성경적이나 아니냐로 논쟁을 하고, 이제 그 논쟁도 더 이상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오히려 비대면 예배를 지속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떠날까 걱정하는 때를 맞고 있다.

그런데 비행기 타고 몇 시간만 가면 나오는 아프가니스탄. 그곳 성도들은 기독교 박해 1위 국가라는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오랫동안 2위 국가를 유지하다 1위 국가가 되었으니, 그들 자신의 애타는 기도와 그들을 위한 세계 기독교인들의 기도에서 하나님은 무심하신 것은 아닌 지에 대한 자조적 질문이 입 밖으로 새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박해 지수가 1위에서 2위로 낮아진 것으로 보고된 북한에 대해서도 오해하면 안 된다. 북한 동포들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의 불법 탈레반 정부의 탄압이 강해진 것뿐이다. 그동안 조마조마했던 아프가니스탄 지역이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최악의 상황을 맞은 것일 뿐이란 얘기가.

강단에서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대해 설교하려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죄인을 위해 죽이신 얘기를 하려면 이제 우리는 아프가니스탄과 북한을 비롯한 수많은 박해 국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들이야말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줄 알고도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야말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그 두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 자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 강도 만난 자들을 도울 것인가? 가장 추상적인 말 같지만, 가장 힘 있는 말, 중보기도. 내 손으로는 그를 싸매 줄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그들을 만지실 수 있다. 사마리아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섬김의 자리를 잠시라도 비울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는 늘 함께하실 것이다.

모든 기도회 때마다 북한과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기도의 제목을 끊임없이 올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30일 기도 소책자를 적극 활용하자. 필자의 경우, 2022년 2월호 월간지와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30일 기도 소책자를 제자사역반에 나누며 기도할 생각이다. 이렇게 기도의 저변을 끊임없이 마련하면 하나님이 섭리하신 때에 반드시 구원의 날이 오리라 믿는다.

CONTENTS

04 북한선교현장 - 탈북민수기

-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12)"

08 박해와 선교현장 - 아프가니스탄

14 심화현장 - 비밀신자의 신앙 여정

18 현장스토리 - 북한 비밀 지하교회를 살리는 비밀 선물들

22 Heart to Heart

- 북한 파송 선교사 모집 / 북한 선교학교 참석자 모집

23 희망의 선물

24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OPENDOORS 7가지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2022년 03월호 | 통권 239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사

사무총장 _김영복 선교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김지옥, 오현정, 문민환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김셋별

<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양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2)

- 사활을 다툰 교화소 별목반 생활 -

마리아 자매

감옥 안에서는 쥐와 뱀을 잡아먹는 것이 하나의 보양식이며 특별식이었다. 길이나 밭, 화장실이나 면회 장소, 심지어는 감방 안에서도 쥐가 득실거렸는데 가끔씩 운 좋게 하나 잡으면 그야말로 횡재였다. 가족을 벗기고 내장을 뽑는 등 소정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 잡아먹었다. 쥐든 뱀이든 없어서 못 먹는 판국에 죄수들은 눈에 불을 키고 찾아 냈지만 사실상 일반 죄수들이 먹는 것은 불법이어서 숨어서 먹곤 했다. 공식적으로는 허약자들을 대상으로 쥐고기를 삶아주었다.

이 쥐고기가 귀한 선물이 된 일이 있었다. 우리 감방에 오늘로 마흔 세번째 생일을 맞은 여자 죄수가 있었다. 이 죄수의 생일을 어찌 챙겨줄까 궁리하는데 죄수 중 한 명이 쥐를 잡아왔길래 그 쥐고기를 받아서 그 친구에게 선물해줬다. 그 친구는 너무 고마워하면서 평생 잊지 못하겠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 죄수는 쥐의 털을 그슬리고 내장을 뽑아서 공구수리공에게 그 쥐고기를 넘겼고, 수리공이 그 고기를 물에 삶아 주었다. 밖에서는 쥐고기를 생일 선물로 주다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열악한 감옥 안에서는 그만큼 귀한 물건이었다.

나는 출소를 몇 개월 앞두고 감자반에서 별목반으로 전방(轉房)되었다. 방을 옮기기 전 루디아 선생을 찾아가 손을 잡고

“나는 다른 방으로 가니 보배언니를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 보배 언니는 여전히 허약자였다. 루디아 선생은 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이 시대의 사도 바울과 같은 루디아 선생과의 짧다면 짧은 몇 개월 간의 신비한 신앙의 교류를 뒤로하고 나는 다시 새로운 환경으로 떠나갔다.

별목반은 보통 교도소 출소가 몇 달 남지 않은 죄수들이 배치되었다. 별목반 생활은 실로 교도소 생활 가운데 가장 곤욕스러웠다. 새로운 감방에서 또다시 신입이 되어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다시 배웠다. 산에 올라가 도끼를 이용하여 3미터가 넘는 큰 나무를 찍어 넘어뜨리고는 가지치기를 했다. 작업을 끝낸 나무는 어깨에 끈을 매고 끌어서 산 아래까지 지고 내려와 정렬시키고 다시 올라가기를 반복하여 하루 할당량을 채워야 했다.

처음 벌목을 하는 날이었다. 다같이 대열을 맞추어 수림이 빼곡한 산등성이에 도착했다. 1조장과 2조장은 서로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하더니 각각 “좌측으로!”, “우측으로!” 라는 구령소리와 함께 조원들이 모두 출격했다. 첫날 내가 받은 도끼는 날도 무디고 자루도 짧은 못쓸 도끼였다. 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 일곱 그루를 찍어와야 했다. 경험도 없는 데다 날도 없는 도끼로 나무를 찍으려니 손바닥이 다 벗겨지고 피멍

이 들었고 나중에는 장갑이 피로 질척거렸다. 나뭇가지가 우거진 깊은 숲이라 도끼로 찍은 나무가 바닥으로 쓰러지지 않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려 땅으로 내려오지를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나무통 하나를 넘어뜨려 가지치기를 마치고 내 어깨에 끈으로 연결했다. 이 나무를 질질 끌면서 집합장소까지 매고 내려가야 하는데 너무 무거워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약해진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자 악을 지르며 나무를 끌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소리가 아니라 짐승 소리가 났고, 목에서 단내가 나더니 나중에는 쇠비린내가 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결국 나는 정해진 집합 시간까지 일을 끝내지 못했고, 내가 너무 내려오지 않아 조장이 군인들과 함께 올라와서 나를 찾았다. 그러고는 으레 지각자에게 하던 식으로 총의 개머리판으로 구타하였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에게 이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벌목일이 아직 손에 익지 않은 어느 날, 나무를 찍는다는 게 그만 도끼가 나무를 빗겨 나가 내 발등을 찍었다. 있는 힘껏 내리친 것에 비해 큰 사고가 나지는 않았으나 신발이 찢어지고 발이 부어 올랐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고열로 끔찍한 시작했다. 같은 감방 죄수들은 내가 아픈 것을 아프다고 인정해주지 않고 궤병이라고 여겼다. 반장이라는 여자는 그 다음 날 영락없이 출근해야 한다면 으름장을 놓으면서 자기는 발 뒤축을 도끼로 찍어도 출근했다는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큰소리를 쳤다. 그래도 내 옆의 앉은 죄수는 나에게 찬물 찜질을 해주며 안타까워했다.

자기 몸집에 몇 배나 되는 나무를 찍고, 넘어뜨리고, 옮기는 일이 얼마나 고된 지... 벌목반의 죄수들 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밤에 실수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몇 달만 있으면 곧 출소할 사람들을 모아 놓은 벌목반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루를 앞두고 죽는 사람들도 보았다. 그 정도로 노동 강도가 강했지만 제공되는 음식은 충분한 영양을 챙기기에는 당연 역부족이었다. 꺼끌꺼끌한 옥수수 겹데기가 끼니랍시고 나왔을 때는 정말 절망스러웠다. 영양가가 하나도 없기에 소화가 안되고 다 변으로 나왔다. 영양실조는 이미 만연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던지 어떤 죄수는 움이 난 곳에 발라서 치료하기 위해 모아둔 유향가루와 돼지기름을 정신없이 먹어 대더니 그 부작용으로 미친개처럼 날뛰기 시작했다. 그 죄수는 자기가 먹는 것이 독약인 줄 알면서도 '설마 이걸 먹고 죽겠냐'라는 심정으로 배를 채웠던 모양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죄수



가 왜 그러는지 정황을 몰라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했고, 그 죄수는 그렇게 펄떡펄떡 뛰다가 생을 마감했다. 진작에 위세척을 했으면 살아날 수도 있었을 텐데...

벌목반에 있을 때는 직접 시체도 옮겨봤다. 한번은 같은 감방 조원이 죽었는데, 그 조원은 생전에 평평이 떡을 실컷 먹고 죽는 것이 소원이라던 사람이었다. 또 다른 죄수는 자기 아기를 중국에 두고 왔는데 죽기 전에 그 아이를 한 번만이라도 보고 죽었으면 하고 입버릇처럼 말했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아위어서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았던 사람들이 죽으면 그렇게 무거워질 수가 없다. 나와 또 다른 죄수 두 명에서 시체 하나를 날라서 옮겨 놓는데 너무나 무거웠고 너무나 무서웠다.

어느 날은 벌목을 하러 대열을 맞추러 걸어가는데 멀리서 부터 시체를 담은 수레가 오는 것이 보였다. 교관이 "뒤로 돌아! 머리 숙여!"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우리는 호기심에 슬쩍슬쩍 뒤를 돌아보았고 나는 급기야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야 말았다... 교화소에서는 사람이 죽어 시체가 생기면 바로바로 '처리'하지 않고 거진 한 톤 분량정도 되는 수레가 다 찰 때까지 교화소 한 구석에 방치해 두었다가 산으로 옮긴다. 그래서 교화소에는 겨울에 죽는 것이 복이라는 말이 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방치된 시체들이 꽁꽁 얼어 그나마 온전한 몸덩어리를 보존하지만 여름에는 오래된 것부터 부패하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시체를 태우는 가마니는 크기가 크지 않아 도끼로 시체를 재단하여 넣고 태운다. 마지막에 남은 뼈들은 '불망산'이라고 불리우는 산에 버린다. 이곳 죄수들은 죽어서도 땅에 묻히지 못하고 일년 열 두 달 눈비를 맞는다. 교화소 인근 날씨가 순간적으로 바뀔 때면 흔히들 불망산이 노했다고 이야기했다.

이렇듯 무시무시한 교화소에서 나는 '무조건 살아나간다'라는 마음으로 살았다. 벌목반에서도 특출나게 열심히 일하여 1조장으로 뽑혔다. 벌목반 안에는 두 개의 조가 있고 한 조당 인원이 약 20여명 정도였다. 그렇게 보통 크지 않은 집 거실만한 작은 감방에 5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지냈다. 조장은 감방을 관리하고 대열을 인솔하는 일을 하는 '탁자리(탁구공이 공중에 뜨는 식의 출세한 자리)'였다. 하지만 내가 있을 적에 대대로 내려왔던 벌목반 조장들의 마지막 모습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다. 곧 출소를 앞둔 사람들의 방이라 그런지 죄수들의 시기와 질투가 대단하여 잦은 고발과 해코지로 결국에는 조원들이 조장을 궁지에 몰았고, 많은 조장들이 매를 맞고 더 많은 벌목 일감을 받는 등의 처벌을 당했다. 이런 사태를 내 눈으로 이미 두 번이나 보았으니 조장이 되었다고 마냥 좋아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다. 나는 담당 형사를 찾아가 형사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청했다.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1조장이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 저는 여기서 출소할 때까지 제대로 1조장 역할을 수행하고 교화소 문을 나서고 싶습니다"고 간청했다. 담당 형사는 나의 태도를 좋게 보았던지 눈에 띄지 않게 이것저것 마음을 써줬다.

벌목을 하러 산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1조장과 2조장이 산의 모양을 파악하고 조원들을 이끌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산세를 빨리 파악해서 나무가 굵고 많은 곳으로 자기 조를 인도해야 하지만이 그 아래 조원들이 단위시간동안 나무를 작업해서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조장들 간의 견제가 심했다. 내가 1조장을 했을 때 2조장을 하던 사람은 이미 10개월을 벌목반에서 지낸 지라 산세를 파악하는 요령이 있었고 노련한 친구였다. 반면 나는 아직까지 산세를 파악하는 면에서 상대적으로 모자랐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침에 조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면 담당 형사가 대뜸 "야! 1조 여기 붙으라!" 하는 식으로 넌지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덕분에 대부분의 경우 1조가 조금 더 조건이 좋은 곳으로 보내졌다. 자연스럽게 우리 조원들이 매 맞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나는 조장으로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나름대로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었다. 일찍이 담당 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먹을 것이 언제나 부족했던 교화소 생활을 버티기 위해 죄수



북한 시장에서 판매하는 치약들.
가장 왼쪽에 백학 치약의 상표가 보인다. (데일리 NK)

들은 시도때도 없이 주변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곤 했는데 벌목반도 예외는 아니었다. 벌목반의 장점은 봄에는 두릅을 따먹고 여름에는 버섯을 따먹는 등 산 곳곳을 누비며 식용 작물을 그나마 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은 조원 몇몇이 나무를 하면서 개암버섯을 따왔다. 원래 개암버섯은 독 때문에 생으로는 먹을 수 없고 조리하여 먹어야 하지만 우리는 오랜만에 생긴 별식이 반가워 그저 단지밥에 소금을 찍어서 조금씩 나누어 먹었다. 그러나 몇 분 후, 면역력이 원래 약했던 나는 개암버섯의 독기가 올라와 쓰러졌고, 구토와 설사로 사경을 헤맸다. 그 순간 조원 중 한 명이 '백학치약'을 꺼내어 입에 절반을 짜주었는데, 신기하게도 곧 구토와 설사가 멈추었고 독으로 인한 여러가지 증상들이 완화가 되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북한의 꽃재비들은 그 백학치약을 하나씩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변질된 음식을 주워 먹고 탈이 났을 때 짜 먹었다고 한다. 다른 치약은 안되고 그 백학치약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성분 덕인지 궁금하기도 하다.

정말이지 교화소에서의 생활은 사활을 다투는 전장이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잦은 고초에 시달렸던 그 시간은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었다. 특히 마지막 벌목반은 매일 생활총화를 시켰는데 이것이 큰 고역이었다. 고된 하루 일과도 이미 너무 피로한데 하루 생활 중에 조금이나마 트집 잡힐 일이 있었으면 무수히 쏟아지는 비판 속에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압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 고비고비마다 함께하시고 도우신 주님의 은혜로 때마다 적절한 사람과 적절한 도구, 방법을 예비해 주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지금 자유롭게 안정 가운데 그 당시를 회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금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

Afghanistan



폭력과 압력의 수준



6개 영역 지수는 영역별로 최대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된다. 영역별 지수의 총합은 100점이다 (16.7 X 6개 영역 = 100).

주목할 만한 점 (Key findings)

거의 모든 아프가니스탄 그리스도인들은 이슬람에서 회심한 사람들이며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낼 수 없다. 이슬람을 떠난다는 것은 무슬림들에게 수치스러운 일로, 이슬람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여겨진다. 기독교 신앙이 드러날 경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떠나야만 한다. 탈레반이 2021년 8월 15일 정권을 장악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탈레반의 눈을 피해 숨었다. 이는 여성과 소수 민족뿐 아니라, 배교자로 여겨지는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포함함한 소수종교인들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가족, 부족이나 가문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처리함으로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만 한다. 권력을 잡은 탈레반이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많은 지역을 장악하면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일단 탈레반이 권력을 굳히고 나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탈레반이 정비한 사회의 엄격한 구조에 적응하고 순응해야만 할 것이다.

국가 정보

지도자:

히바툴라 아쿤드자다
(Hibatullah Akundzada)

인구:

38,914,000 명

기독교 인구:

수 천 명 (오픈도어 추정치)

주요 종교: 이슬람교

정부형태:

아프가니스탄 이슬라믹 통치국

주 박해 요인:

이슬람의 탄압, 가족의 박해,
조직적 범죄, 인종-종교적 적대감



아프가니스탄 상황

아프가니스탄은 40년이 넘도록 평화를 찾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기반시설, 경제조직과 사회조직의 붕괴를 가져왔고, 이슬람의 과격화, 범죄 활동과 부패의 확산을 야기했다. 탈레반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가니스탄 영토의 3/4정도를 장악하였다. 2021년 8월 15일,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전체를 다시 집권하였고 소위 말하는 '임시정부'는 소수민족이나 소수종교 또는 여성에게 어떠한 관심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시정부 대부분의 내각들은 탈레반의 첫번째 집권 때 보았던 익숙한 인물들(국제 테러리스트 목록에 올라가 있는 인물들)로 구성되었고 아프간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소식들은 이슬람교의 가혹한 해석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아프간 정부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빈곤층 비율이 인구의 54.5%를 차지할 정도로 아프가니스탄은 이미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국가의 불안정은 많은 농부들이 아편과 같은 불법 약물 생산을 통한 수입에 크게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국제사회의 지원과 재정 지원의 종료와 함께 빈곤의 정도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카불의 상황이다. 2001년 탈레반이 떠

날 당시, 카불(Kabul)은 5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작은 수도였다. 하지만 2021년 탈레반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기 전, 카불은 최소 500만 명의 인구가 사는 혼잡한 도시가 되었다. 국내 실향민(IDPs)의 급격한 증가와 주변국으로 떠나는 난민의 예상되는 증가는 아프간의 불안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UN은 2천 3백만명 이상이 올 겨울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별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

월드와치리써치(World Watch Research 2022)가 진행된 당시에는, 탈레반 집권이 얼마만큼 의미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는 어려웠다. 아프간 북부 판지시르 계곡(Panjshir valley)에서 발생한 탈레반에 대항한 첫 번째 저항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탈레반에 대항할 수 있는 더 강한 세력은 아프가니스탄 동부지역에서 탈레반 수송부대를 공격했던 ISKP(Islamic State Khorasan Province)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더 나은 대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상황은 더 폭력적이고 불안정해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곽지역이 대부분의 도시들 보다 통제와 감독이 엄격하다고는 하지만 나라 전체가 엄격한 이슬람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발각되는 지역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가족들과 정부로부터 심각한 어려움을 당한다.

영향을 받는 기독교 공동체는 누구인가?

국외 거주 외국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들

국외 거주 외국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수적으로 거의 미미한 수준이며, 월드와치리스트 박해지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체로 잘 보호받고 고립된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들 대부분은 탈레반 집권 전에 아프가니스탄을 떠났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이슬람 영향권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내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20세기에 첫 개종자가 나온 이 후로 계속 존재하고 있으며,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 기독교인들은 가족이나 광범위한 지역 사회 공동체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기독교 신앙이 발각된다는 것은 삶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을 가져온다.

비전통적 그리스도인 공동체들

이슬람권 역사의 영향으로, 아프가니스탄 내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박해와 차별의 주 요인

이슬람의 탄압

탈레반과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 탈레반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집권 정부가 되었기 때문에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공격할 수단과 방법들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수민족들과 기독교와 같은 소수 종교인들은 ISKP(Islamic State Khorasan Province)와 탈레반 간의 전쟁 한복판에 놓여 양 진영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가족의 박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은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정체성에 지배적 위협으로 간주된다. 아프가니스탄의 가족단위 공동체라는 집산주의적 특성은 개인의 사생활에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는다. 이는 혈족 구조와 확대된 가족 공동체 내에 발생하는 심한 강제성과 발각될 경우의 큰 위험이 존재함을 말해준다.

인종적-민족적 종교 적대감

같은 가족과 이웃과 부족을 돌보는 것은 아프간 사람들의 삶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같은 부족 중 누군가가 이슬람이 아닌 낯선 무언가를 받아 들이고자 가문을 떠나려 하면, 이는 그 사람이 이슬람 전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강한 압력을 가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욱이, 기독교는 이슬람과 아프가니스탄의 문화와 사회에 적대적인 서구 종교로 여겨진다.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아프가니스탄 GDP의 80%는 비 정상적인 산업으로부터 오며, 부패와 범죄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 아프가니스탄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아편과 같은 마약류 작물 재배가 다른 어떤 작물 재배 보다 수익성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이다. 양귀비 재배를 통해 얻은 수입은 무장조직 지원 자금과 부정부패 뇌물로 들어간다. 이는 대체로 사회 저소득층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영향이 크다.

남성과 여성으로서 받게 되는 피해는?

여성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함에 따라 여성의 권익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탈레반 집권 이래로 여성 인권과 권리 보호는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월드와치 리서치(World Watch Research 2022)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학생들은 학교 등교를 금지 당했고, '단정한' 옷을 갖춰 입고 집에 얹전히 머물라고 압력을 받았다는 많은 보고가 있었다. 여성의 취약한 사회적 위치로 인해 기독교인 여성들의 박해는 더 쉽게 발생한다. 개종한 여성 기독교인들은 이혼에 취약하며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이들 여성들은 노예나 매춘부로 팔리거나, 잔혹하게 폭력을 당하거나, 이슬람으로 다시 개종시키기 위해 무슬림 남성에게 결혼을 강요당하거나, 성적 학대를 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학대에 대해 신고와 도움 요청은 안타깝게도 사회적 낙인찍기와 불충분한 법의 보호 아래 묵인되고 있다.

여성들이 겪는 피해들

- 납치와 유괴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가족에 의한 감금/가택연금
- 폭력에 의한 살인
- 신체적 폭력
- 정신적 폭력
- 성폭력
- 언어 폭력

남성

기독교 신앙이 발각될 경우, 많은 남성들과 남자 아이들은 가족들로부터 심한 폭력과 압력을 당한다. 탈레반은 남성들에게 하루 5번 기도하고, 모스크예식에 참여하고, 금식하고 '올바른' 수염을 기름으로써 가족들에게 좋은 무슬림 가장임을 보여주라며 압박한다. 개종한 기독교인 남성들은 신앙을 이유로 조롱당하고, 투옥되고, 고문을 당하고, 성적 학대를 받으며, 사형을 당하기도 한다. 소년을 포함한 남성들은 또한 이들을 군대에 강제로 동원하려는 민병대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남성 개종자들은 경제 활동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슬람 종교 의례(하루 5번의 기도)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기독교 신앙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장이 아닌 대안적 수입원을 찾고자 노력한다. 기독교 신앙이 발각될 경우, 고용주와 당국으로부터 심한 차별을 받게 되고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남성들이 겪는 피해들

- 사회 공동체/네트워크 접근 금지
- 직장/구직/사업 영역을 통한 경제적 압박
- 정부에 의한 구금
- 폭력에 의한 살인
- 신체적 폭력
- 정신적 폭력
- 성폭력
- 언어 폭력



최근 5년간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및 박해지수

년도	월드와치리스트순위	박해지수
2022	1	98.33
2021	2	93.52
2020	2	93.33
2019	2	93.89
2018	2	93.33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들은 박해 요인과 수단은 다르지만 북한과 같은 극심한 수준의 박해를 견뎌내고 있다. 그러나 탈레반이 정부를 장악하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안전을 이유로 아프간을 떠나거나 국내 안전한 곳을 찾아 나서고 있다. 그 결과, 많은 교회들이 폐쇄되었고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모든 소유와 터전을 남겨둔 채 떠나야만 했다. 그래서 2022년도 월드와치리스트 박해지수 폭력지수가 15점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의 높은 박해지수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프간을 떠나고 있음을 의미하지도, 아프간에서 교회생활이 불가능함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프간의 박해상황이 앞으로 나아질 것을 의미하거나, 올해 2위가 된 북한의 상황이 나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어떤 지표나 견해도 없다는 점 역시 기억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의 크리스천의 삶은 어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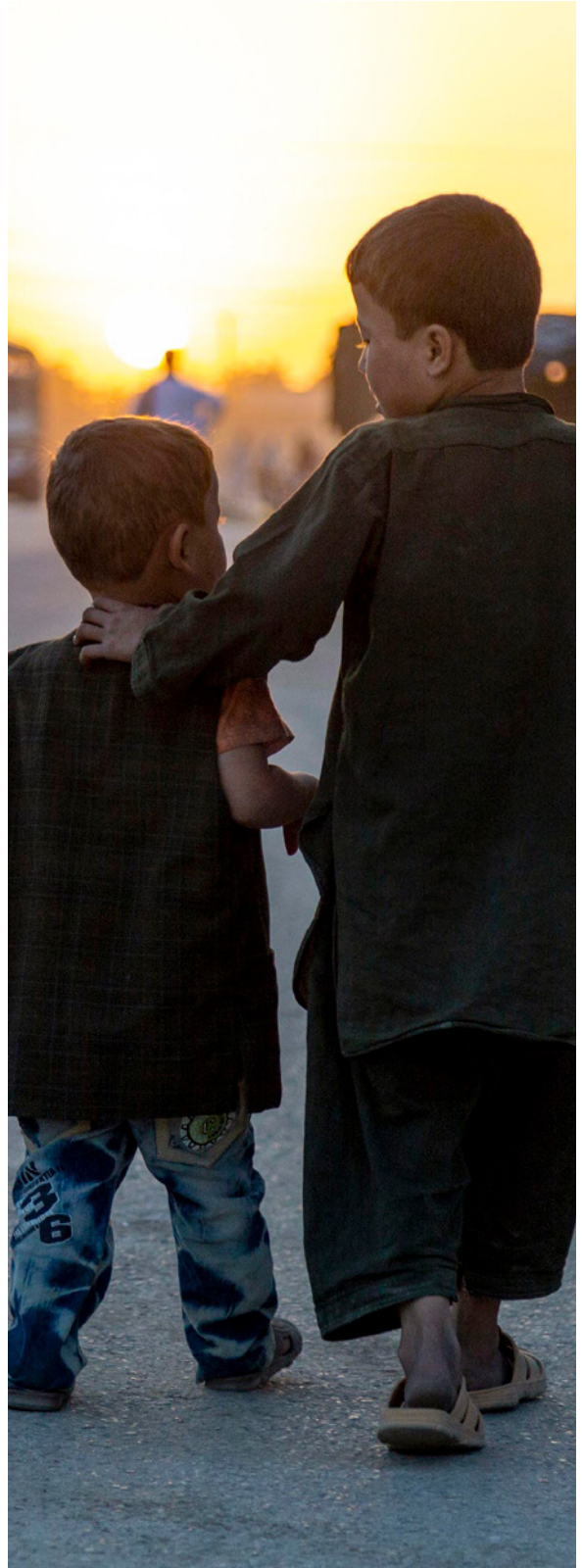
(폭력관련 내용은 보안상의 이유로 세부내용을 밝힐 수 없습니다.)

개인 영역

기독교로의 개종은 엄격히 금지되고 엄중하게 처벌된다. 유대가 긴밀한 부족사회란 사회적 통제가 심하고 개인 사생활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기독교 개종자는 발각됨으로써 오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보고에 따르면, 탈레반정권은 자신들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지난 2021년 8월 이 전부터 이미 집권지역 내 휴대전화 통신 감시를 강화했다. 실제로 탈레반 집권 이후, 많은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휴대전화와 다른 통신기기들을 완전히 폐쇄하고 안전한 은신처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가정 영역

아프간의 사회 체제의 집단주의적 특성은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의심만으로도 강제 체포나 가족 말살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극도의 주의가 필요하다. 기독교인 배우자의 경우 이혼이나 혼인 무효의 압박을 심하게 받는다. 탈레반 정부가 자녀들을 무슬림으로 양육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기독교인 배우자는 자녀 양육권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겪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사회 체제 속에 살아가는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삶의 어떤 측면에서는 한 사람의 무슬림으로서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할 필요를 느끼기도 한다.

공동체 영역

탈레반이 아프간 정권을 장악하면서 이런 압박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가고 있다. 오픈도어 현지 전문가는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명의 무슬림의 역할을 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한다. 만약 아프간 사회에서 기독교 여성이 머리를 천으로 두르지 않는다면, 원하지 않은 주변의 관심을 끌게 될 것이며, 지역 사회 주민들은 천으로 여성의 머리를 가리도록 강요와 강압을 가할 것이다. 기독교인 학생들은 이슬람적 가치를 매우 강조하는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 아직은 시행이 일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는 않

지만 일반적으로 기독교인 여학생들 역시 일반 무슬림 여성들과 소년들처럼 교육에서 배제된다. 많은 기독교 개종자들이 현재 안전을 찾아 거주지를 옮기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슬람으로 다시 개종하라는 엄청난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아프가니스탄이나 거주하는 지역을 떠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아프간에 남기로 결정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어려움과 고난으로 고통받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국가 영역

탈레반의 집권으로 효력이 중단된 지난 정부의 아프간 헌법은 다양한 종교를 갖을 자유와 종교생활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헌법도 이슬람의 교리와 조항들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제3조항이 많은 영역에 있어서 제한을 초래했다. 아무리 표현이 유연하고 부적절하거나 이슬람에 반하는 내용이 없더라도, 이슬람에 대한 비난은 사실상 신성 모독과 동일하게 취급되었고 기독교인이나 비 수니파 무슬림을 포함한 기타 소수 종교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샤리아법의 직접적인 통치 아



래로 돌아갔으며 탈레반이 새로운 헌법을 시행할지는 아직 명확히 알 수 없다. 기독교인으로 의심되는 모든 이들의 이동 동향은 감시되고 신앙에 기반한 움직임으로 의심될 경우 언제든지 이동에 제한을 받는다. 탈레반의 검문검색은 엄격하고 빈번하기로 악명이 높다. (과거에는 검문소를 통해 이루어졌고, 지금은 현장을 불시에 급습하는 방식으로 이루지고 있다.)

교회 영역

아프가니스탄 내에는 대중에게 열려 있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교회는 없다. 유일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 기도실은 카불시에 위치한 이탈리아 대사관 지하 공간이 유일한데 이마저도 아직 카불 내에서 일하고 있는 소수의 외국인 거주자들에게만 겨우 허용된다. 소수라도 기독교인들 그룹들은 모임을 갖을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픈도어 현지 전문가들은, 교회들이 지하에서 비밀리에 모이고 있다고 전한다. 교회의 예배 역시 여러 사람들이 모인 식사 자리처럼 보이고 모든 기독교관련 자료들은 숨겨진다. 이들 기독교인들은 감시에 발각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발각될 경우 도망가거나 지역 법정 지르가(Jirga: 원로부족회의로, 사법기관의 역할을 한다)에 넘겨져 심각한 폭력을 당하게 된다. 성경이나 다른 기독교 자료를 보급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컴퓨터 파일 형태의 자료를 나누는 것조차도 발각될 경우 생명을 위협받는 결과가 따른다. 탈레반 정권이 ISIS-K분파들(Khorasan지역에서 활동하는 IS 세력으로, 가장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지하디스트 세력들)에 대항해 싸울 청년/청소년들을 모집하기 시작하면서 청년들 사이에서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위험하다. 이러한 모병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청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가 누구라도 군사자원인 청년들의 마음과 열정을 빼앗는 경쟁적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오픈도어-아프가니스탄

(Open Doors in Afghanistan)

오픈도어 사역의 민감한 특성과,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 및 사역자들이 직면하는 위험성의 증가때문에, 우리 오픈도어 선교회는 페르시아 걸프 지역 주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픈도어는 페르시아만 국가 내의 ALIVE 네트워크 교회들을 통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국제적 의무와 권리 침해 (International obligations & rights violated)

아프가니스탄은 다음의 국제 규약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01.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CP)

02.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ESCR)

03.유엔고문방지위원회: 고문 및 잔혹한 비인간적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CAT)

04.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05.유엔아동권리협약(CRC)

아프가니스탄은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위반함으로써 국제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개종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ICCPR 6조항)

-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들은 강제로 혼인을 당하고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을 강요 받는다. (ICCPR 23.4조항과 CEDAW 16조항)

-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모두 무슬림으로 여겨지고 종교를 바꾸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ICCPR 18조항)

-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종교적 이미지나 상징들을 드러낼 수 없다. (ICCPR 18조항과 19조항)

- 개종한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은 이슬람 종교의 규율 지키고 이슬람의 가르침을 받도록 강요받는다. (ICCPR 18조항과 CRC 14조항)

기독교 비밀 신자들의 신앙 여정의 4 단계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범죄이며, 때에 따라 법의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비밀리에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다.

이들 비밀신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들은 박해를 받거나,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국가당국과 종교 교사들에게 추적을 당하거나, 교회센터로 보내져 이들을 다시 개종시키려는 국가당국의 고문을 받는다. 종교의 자유는 이들 비밀신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오픈 도어 현지 파트너인 한 MBB(Muslim Background Believer) 지도자는 "이슬람 세계에서, 기독교 신앙을 겉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심각한 피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비밀신자들과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고 늘 완벽하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한다. 이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이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도록, 그래서 언젠가 자신들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전했다.

삶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밀신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정도로 담대하다. 다음의 4가지 스토리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는 기독교 비밀신자들의 실제 스토리이며, 각각의 이야기들은 비밀신자들의 신앙의 여정 4단계를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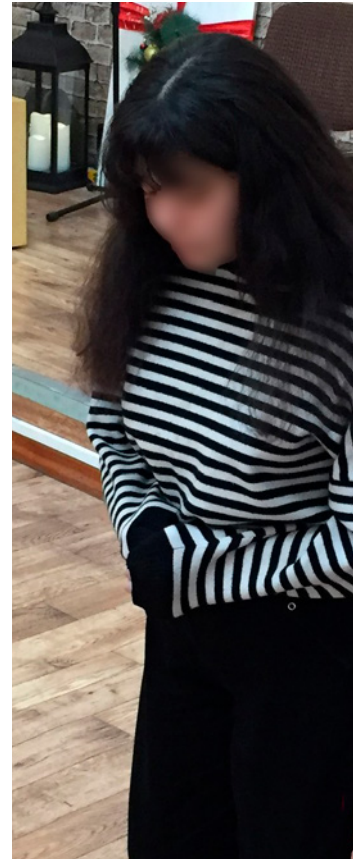
1단계: 기독교 신앙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비밀로 하고 있는 비밀 신자들.

"남아시아 비밀 신자 이야기"

모리움(Morium)은 남아시아의 한 국가 남서부지역에서 온 19세의 비밀 신자이다. 그녀는 매우 보수적인 무슬림 가정 출신이다. 모리움의 모든 삶은 보수적인 무슬림 가족에 의해 통제된다. 그녀는 휴대 전화도 사용할 수 없으며, 그녀의 친구들 또한 가족들에 의해 선택되고 허락된 몇몇 소녀들 뿐이다.

모리움은 어느 날 우연히 기독교인 한 소녀를 만났고 그녀와 매우 빨리 친구가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모든 것에 대해 나누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곤 했다. 모리움은 2천년 전에 이 땅을 걸으셨던 예수라는 분에게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해 나누기 위해 기독교인 친구를 만나러 몰래 집을 빠져나오기도 했다. 이 기독교인 친구를 만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리움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모리움은 기독교 친구와의 우정을 가족들이 알게 되면 자신과 친구에게 모두 좋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계속 비밀로 숨겼다. "만약 부모님이



알게 된다면, 부모님은 제가 집 밖으로 외출하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들에게 제 기독교 신앙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해요. 가족들이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는 안 돼요. 올 해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들이 주최한 청소년 캠프에 비밀리에 참여한 모리움은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참여했어요. 저는 비밀리에 이곳에 왔어요. 부모님과 형제들은 제가 이 곳에 참여하고 있는지 몰라요. 가족들에게는 절대 말할 수는 없어요. 이번 청소년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게 좋고 이런 기독교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것이 좋지만 사실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고백했다. 모리움은 자신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을 얼마나 더 숨길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안전을 위해서 계속 비밀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단계: 기독교 신앙을 비밀로 했었지만,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서서히 고백하고 있는 비밀 신자들.

“동남아시아 비밀 신자 이야기”

카비르(Kabir, 가명)는 이슬람에서 이사 알마시흐(Isa Almasih)라 칭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 4년이 된 비밀 신자이다. 카비르는 이슬람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기로 잘 알려진 부족 출신으로 매우 경건한 무슬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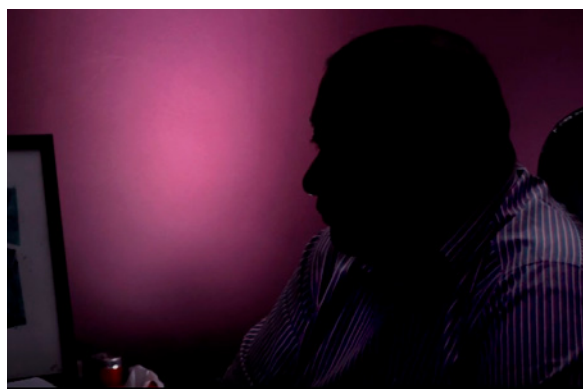
카비르가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사회 공동체 내에 알려지게 됨으로 오게 될 위험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카비르는 한동안 기독교 신앙을 비밀로 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품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들이 진행한 훈련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카비르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천천히 기독교인으로서 박해를 마주할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카비르는 어느 날 "난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했는데,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숨겨야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 결과, 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소식을 조금씩 알리기로 결심했다. 마을 공동체 사람들은 벌써 카비르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카비르의 신앙 간증을 듣고 나서, 기독교에 대해 안정을 찾았고 심지어 카비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카비르의 남매 형제들도 그의 기독교 신앙을 알고, 크게 화를 냈지만, 카비르를 부모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카비르의 신앙을 비밀로 해 주었다.

멀리 살고 있는 카비르의 부모님들은 아직 그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카비르는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들에게 문을 열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3단계: 기독교 신앙이 발각되었거나 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나눠서 정부당국과 종교지도자, 가족이나 지역 공동체로부터 추적을 당하고 있는 비밀 신자들.



“동남아시아 비밀신자 이야기”

"아무도 저의 상황을 이해해 주지 못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꼈고, 자살 충동을 느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울고 나서, 저는 제 마음 안에 갑자기 평안을 느꼈고, 어떤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정 하렘. 울지 않아도 된 단다. 하나님은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신 단다. 그 분은 네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셔. 너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란다.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야.'"라고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비밀 신자 루티(Ruti, 가명)는 고백한다.

열 일곱 살의 루티는 자신이 기독교인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것이 가족들에게 '잘못된 사람'에게 빠지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루티가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했을 때, 가족들은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기독교인 남자와 교제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모든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루티의 가족들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 가족들은 루티의 남자친구가 루티에게 주문을 걸어 그녀가 이슬람을 떠난 거라며 무당에게 데려가 루티를 설득하려 하기도 했다. 또 그녀의 '기독교 정신'을 쫓아낸다고 물약을 마시게 하기도 했고,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가족들은 그녀의 십자가와 연관된 모든 소지품을 압수하여 그녀

앞에서 부수었다. 가족들은 그녀가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을 요구했지만 루티는 대담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 예수, 예수님만 믿어요!"

그녀를 한 번 때리고, 또 한 번 때리고, 또 한 번...가족들은 그렇게 수없이 그녀를 때리고 그녀의 목을 졸랐다.

"가족들은 또한 내 머리카락을 뒤로 잡아당겨 잘랐어요. 내 손을 너무 꼭 잡아서 손톱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어요." 루티는 계속 말하길, "가족들은 제가 알라신의 이름을 불렀다고 생각해서 조르던 목을 풀어주었어요. 그리고는 '루티가 의식이 돌아온 것 같다. 이제 그만 하자. 우리 이슬람은 아름다우니까'라고 서로 말했어요."

몇 달 후, 루티는 몰래 빠져나갈 방법을 찾았다. 그녀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진 마을로 가는 버스에 몰래 올라탔다. 그녀는 지금까지 어디도 혼자 떠나본 적이 없었고, 한번도 가보지 않은 마을에는 절대 혼자 가지 않는다. 루티를 알고 있는 현지 기독교인들은 그녀를 위한 도움을 요청했고 루티는 최근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들에 의해 안전한 집으로 옮겨져 보호받고 있다.

루티는 현재 그녀를 훈련시키고 돌보고 있는 멘토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들은 그녀가 독립적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재정적으로 그녀를 지원할 계획이다. 끔찍한 박해의 트라우마를 겪고 여전히 가족들에게 쫓기고 있는 루티. 루티는 언젠가 자신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기독교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가고 있다.



4단계: 기독교 신앙을 가족과 친구와 지역 사회에 공개적으로 밝히는 비밀 신자들.

"남아시아 비밀 신자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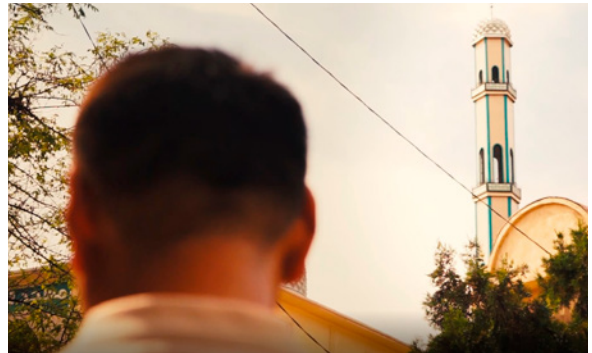
카타리나(Katharina, 가명)는 명망이 높은 이슬람 종교 지도자의 딸이었다. 그녀는 일평생 이슬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고, 한 번도 무슬림으로서 삶을 의심하지 않았고 의문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카톨릭 가정에서 태어난 무신론자 남편과 결혼한 후, 그녀는 자신의 이슬람 신앙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카타리나의 남편은 종교에 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었는데, 카타리나와 결혼하기 위해 이슬람교로 개종을 요구받자, 그녀의 남편은 카타리나에게 많은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고, 그 질문들은 카트리나에게 더 많은 질문을 갖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들을 묻기 시작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모든 질문들에 답해 주었고 심지어 몇몇 이슬람 종교 학자들까지 소개해 주며 그녀의 질문에 답해 주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여러 번 질문을 하고 답을 들어도 그 답이 만족스럽지가 못했다.



이러한 그녀의 경험은 그녀 스스로 연구하도록 만들었다. 카타리나는 여러 그룹 토론들에도 참여했으며, 그 중 일부는 반 하디스 그룹(Anti-hadith: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하디스를 거부하는 그룹)과 같은 이슬람에 있어 논란이 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토론 그룹이었다. 수개월간의 연구와 영혼에 대해 조사한 끝에, 어찌된 일인지, 카타리나는 성경책을 손에 들게 되었다. 그녀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 그녀가 답을 찾지 못했던 처음의 질문들에 대한 답들이 아주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

카트리나는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남편과 나누었고, 종교에



회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최선을 다해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두사람의 간증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카트리나 부부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가족과 직장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다. 한번은 박해가 너무 심해서 살고 있는 나라를 떠나야 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몇 년간 해외에서 지낸 뒤, 주님께서 두 사람 손에 맡기신 사명을 계속 감당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 가기로 결정했다.

카타리나의 가족은 그녀와 가족의 연을 끊었고 그녀는 더 이상 그녀의 가족과 아무런 관계도 없게 되었다. 가족들은 그녀가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 장례식에 돌아가신 아버지께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 카타리나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며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살고 있는 지역에 가정 교회를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비밀 신자들과 추방된 기독교인들을 다시 모으고 있다.

카타리나 부부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들 부부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북한 비밀 지하교회를 견뎌내게 하는 비밀스러운 선물들

북한에서는 남몰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비밀신자들에게 끊임없는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밀 신자 중 담대한 믿음을 가진 배자매에 대해 소개합니다. 오픈도어를 통한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어떻게 배자매에게 다가오는 날들을 견뎌낼 힘과 용기를 주는지 소개합니다.



배자매는 북한에서의 힘든 노동과 배고픈 삶을 이겨 내기 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중국으로 가야한다고 느꼈다.

북한의 산 속 어느 시골 마을 판잣집에서 매일 아침을 시작하는 배자매는 “매일 아침 눈을 뜰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느껴요” 라고 고백한다. 그녀의 남편은 수면 부족으로 정신이 혼미하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한다.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들판에서의 또 다른 하루를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녀는 농작물을 따는 노동일을 하는데, 자신의 할당량을 채워야만 추가 징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할당량을 채우려고 애를 쓴다. 북한 당국은 배자매와 같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지만 그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을 만큼일 뿐이다. 오늘 아침밥 역시 배고픔을 달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다른 마을 사람들처럼 늘 배가 고프다. 아직은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배고픔이 뼈를 앓는 듯하다.

배자매는 짧은 휴식시간이 주어지면 곧장 숲으로 향한다. 숲에서 채취한 버섯과 나물들은 배고픔을 달래주지만, 늘 구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삶이 저주받은 삶처럼 보이겠지만, 이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굶주린 일상...

해 질 녘이 되어서 그녀의 하루는 끝이 난다. 일과 후 그녀는 또 다른 식사를 받는다. 약간의 국이 전부다. 운이 좋으면 밥을 조금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식사를 받아서 그녀는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나서, 배자매는 그녀의 ‘진짜 일’을 시작한다. 그녀는 달 빛이 구름에 가려질 때를 기다리다, 조용히 외투를 챙긴다. 현관문을 살며시 빠져나와, 이웃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조용히 현관문을 닫는다. 배자매는 마을을 지나 그림자에 몸을 숨기며 숲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이번에는 식량을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그녀가 갈망하는 더욱 중요한 일을 위해서 가는 것이다.

배자매는 뿌리가 휘어진 나무를 찾고 얇게 덮인 흙을 긁어낸다. 그것은 바로 성경책이다. 성경책 꺼내어 외투 속에 깊이

숨기고 그녀는 다시 그 판잣집으로 빠르게 돌아간다.

그녀가 집에 도착하면, 함께 사는 사람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담요로 창문을 가리고 작은 초에 불을 붙인다.

그녀는 성경책을 펴고 겨우 속삭이는 목소리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북한 교회의 모습이다.

성경책 때문에 체포됐던 기억...

배자매가 항상 이 마을에 사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성경책을 소지한 것이 발각되어 남편과 함께 이곳으로 보내졌다. 북한 당국에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발각되었을 때, 이들 부부도 잘 알고 있었듯이, 그들의 삶은 완전히 끝났다.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오픈도어선교회(Open Doors)는 약 40만명의 기독교인들이 북한에 있다고 추정한다. 이들 기독교인들은 모두 비밀리에 신앙을 갖고 있는 비밀신자들이다. 기독교인의 신앙이 노출되고 체포된 뒤, 목숨을 부지하거나 탈출한다는 것은 정말 운이 좋은 경우이다.

배자매와 그녀의 남편은 정말 운이 좋아서 살아 남았지만 평생 동안의 노동과 고역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는 “적대적 계급 성분”으로 분류되었다. 적대적 성분이란, 정부의 구호, 노동과업이나 다른 공식적 지원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자매부부는 외딴 시골마을로 보내져서 매우 고된 농사 노동을 부여 받았다. 배자매부부는 죽을 때까지 이런 고된 노동을 하며 이 마을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배자매는 “제가 가장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제 삶을 다 바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고백한다.

“적대적 계급”

외딴 시골 마을로 보내진다고 하면 가벼운 형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시골 마을 농장이라기 보다는 외딴 감옥에 더 가깝다. 그 곳 마을에서 농사 노동하는 배자매와 같은 사람들은 늘 감시당하고 있으며 이 마을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도로는 철저히 감시되고 경비 역시 삼엄하다. 이곳을 탈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며, 가능한 일상 생활 범위는 마을을 둘러싼 작은 지역에 한정된다.

배자매는 한번 탈출할 기회가 있었다. 그녀는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들어왔으며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사역자들이 운영하는 안전가옥에 접촉했었다. 그 곳에 머무는 동안 그녀는 다른 기독교인들을 만났다. 북한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그리스도인들과 달콤한 교제를 경험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가옥의 지도자들은 배자매에게 필요한 음식, 상비약과 새로운 성경책 한권을 주었다. 그녀는 그 곳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책을 읽었다. 그 곳에서는 조용히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녀가 중국에 머무르는 동안, 안전가옥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고향에서의 엄격한 통제를 벗어나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그녀는 거부했다.

굳건한 믿음

배자매는 음식과 상비약,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비밀신자모임의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통해 준비된 이 귀한 선물들이 이렇게 북한 지하교회 비밀신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픈도어를 통해 전달되는 여러분들의 “비밀 선물들”이 북한 비밀 신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앞으로의 시간 동안 신앙을 잃지 않고 견뎌낼 힘이 됩니다.

우리 오픈도어의 목표는 항상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2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북한 교회가 처해있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



배자매는 비밀성경책을 숲속 나무 뿌리 밑에 묻어 보관한다.

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도움이 없다면, 배자매와 같은 북한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신앙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음식, 상비약, 옷과 같은 응급 구호를 제공합니다. 배자매와 같이,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다시 북한 땅으로 돌아가는 용기있는 결정을 하는 중국에 있는 북한 기독교인들에게 안전가옥, 신앙훈련과 성경교재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용된 이름은 신변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으며, 사진은 예시입니다.
메모: 배자매는 북한에 실존하는 인물이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안전을 위해 편집되었음을 밝힙니다.*

● 오픈도어는 배자매와 같은 북한 기독교인들이 굳건하게 성장하도록 중국의 비밀 네트워크를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장기적인 지원과 기도는 예수그리스도를 따르는 북한 지하교회 비밀 신자들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북한과 같이 박해가 극심한 곳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배자매는 늦은 밤 북한의 비밀신자들과 갖는 “비밀교회” 모임 때 대접할 음식을 구하기 위해 틈이 날때마다 음식을 찾아 나선다.

● 함께 기도해주세요

- 극심한 박해를 직면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예수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북한 비밀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 하나님께서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북한 비밀신자들을 사육 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중국에 위치한 안전 가족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2022년도에는 오픈도어가 더많은 북한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구호식량들이 더 많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북한은 지난 20년 동안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에서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2위에 올랐지만, 코로나로 인한 국경 통제와 안전상의 문제로 인한 리써치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결코 북한 박해 상황이 호전된 것이 아닙니다. 올해 박해지수 역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큰 고통 속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배자매의 이야기가 오픈도어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오픈도어” 검색)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배자매와 같은 북한 비밀신자들을 위한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픈도어홈페이지(<https://www.opendoors.or.kr>) 내 “캠페인후원>프로젝트별 후원”을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 선교의 소명을 품은 해외 파송 선교사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인원:

여성사역: ○명 (여성만 지원 가능) / 일반사역: ○명

사역내용

- 선교회 현장사역 참여 (제자훈련, 지도자 훈련, 구제·구호 사역 등)
- 여성 사역은 북한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복음사역

지원자격

- 고난 받는 교회와 특히 북한을 향한 소명이 있는 분
- 교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해외 체류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신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목회학 석사 (M.Div)를 받은 분
- 연령제한은 45세이나 예외 가능, 중국어 가능자 우대

사역 조건

- 선정된 후보생은 소정의 훈련과정을 거쳐 파송 선교사 자격 부여
- 파송 선교사는 선교회의 기준에 따라 사역 및 체류 비용 지원

※문의: 다니엘 간사 (010-5107-8448), 이메일 (info@opendoors.or.kr)

한국오픈도어선교회 2022 북한선교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북한 이해와 선교를 위한 14개의 강의가 **14주간 (4월 26일-7월 26일)**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에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오프라인 강의 참여도 가능합니다.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서부터 국내외 북한선교사역 현장까지 북한과 북한 선교 전반을 다루는 이번 북한선교학교는 북한과 북한선교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Part1 북한에 대한 이해와 선교적 접근 (총 8강)
- Part2 북한 선교의 현장 (총 6강)

수강신청: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에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합니다.

등록비: 10만원 * 목회자, 신학생, 탈북민, 그리고 이전에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를
수료하신 분의 경우 5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픈도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문의: 다니엘 간사 (010-5107-8448, info@opendoors.or.kr)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7,000~)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지원 40\$(50,000 ₩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1.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3.전화(02-596-3171/010-7548-3171)또는 메일(odsk@opendoors.or.kr)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 4.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주소:	-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위 표를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보내실 곳 : 010-7548-3171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1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	전화번호	
출금계좌번호	은행		주소		
출금액	10,000원	출금일선택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출금동의 서명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010-7548-3171)

*직접 이체하실 경우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9301-04-167093 (한국오픈도어선교회)